



여자배구대표팀 이재영(오른쪽)이 22일 일본 도야마에서 열린 국제배구연맹(FIVB) 주최 2019 월드컵 아르헨티나전에서 상대 블로킹을 피해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재영은 23득점으로 이날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한국의 승리를 이끌었다. (도야마(일본) | 신화뉴시스)

## 이재영 23점 팡!팡! ...한국, 월드컵서 2연승

(3승 3패)

김희진 22득점·김연경 12득점 맹폭 아르헨에 3-1...작년 VNL패배 설욕 한국 입단 앞둔 프레스코 22점 분전

월드컵에 출전중인 여자배구대표팀 '라바리니호'가 2연승을 기록했다. 22일 일본 도야마에서 벌어진 국제배구연맹(FIVB) 주최 2019 월드컵에서 세계랭킹 9위인 대표팀은 11위 아르헨티나를 세트스코어 3-1(25-19 21-25 25-19

25-9)로 이겼다. 대회 3승(3패)째다. 20일 줄리아 파스쿠치 대신 흥국생명에 입단하기로 확정된 아르헨티나 주공격수 루시아 프레스코의 가능성까지 확인할 수 있어 많은 배구팬의 관심이 쏠린 경기였다. 가장 만족스럽게 결과를 지켜본 사람은 순천에서 KOVO컵을 치르고 있는 흥국생명 박미희 감독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주는 이재영이 23득점으로 아르헨티나전 승리를 이끌었다. 프레스

코도 22득점을 기록해 흥국생명은 좋지 않은 득점률과 짜여진 공격을 가진 팀으로 탈바꿈했다. 대표팀은 1세트 10점 이상의 여유를 유지한 끝에 쉽게 기선을 제압했다. 2세트 아르헨티나의 날개공격에 밀려 세트를 내줬지만 3, 4세트도 넉넉하게 앞서가는 경기를 한 끝에 지난해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서의 패배를 설욕했다. 대한민국의 아르헨티나 통산 전적은 9승 1패로 우리의 압도적 강세다. 공격득점 68-51, 블로킹 8-5, 서브에이

스 4-2 등 모든 부분에서 한국이 압도했다. 김희진이 3개의 서브에이스 포함 22득점으로 주공격수 역할에 익숙해졌고 김연경도 12득점으로 거듭났다. 대표팀 합류가 늦어 제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던 양효진도 10득점으로 정상궤도로 돌아오고 있음을 알렸다. 블로킹 3개도 좋았지만 중앙에서 7득점을 해주며 이재영의 중앙후위 공격과 함께 대표팀의 새로운 공격옵션으로 기대를 모았다. 대표팀은 23일 낮 12시30분 네덜란드와 대회 7차전을 벌인다. 김중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 SK 김선형이 되돌아본 농구월드컵

“강호들과 계속 싸우면서 성공 확률 높이는 게 중요”

“시도해본 것 자체로 만족한다. 하지만 확률은 더 높여야 한다.”

서울 SK 가드 김선형(30·187cm)은 22일 마카오에서 끝난 2019 동아시아 슈퍼리그 터리픽12에서 많은 주 김선형 목을 받았다. 한국을 대표하는 가드로 뛰어난 개인 기술과 경기력을 선보인 덕분이다. 팬 서비스에도 적극 참여해 대회 관계자들에게도 호평을 들었다. 그렇다보니 각국 미디어의 인터뷰 요청도 쏟아졌다. 21일 대회 4강 저장 라이온스(중국)전에서는 컨디션 난조로 4점·2어시스트에 그쳤고, 실책 6개를 기록하는 등 부진했다. 2019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준비와 참가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비 시즌 동안 쉽지 않았던 김선형은 이번 경기 정도의 난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중국 미디어의 요청으로 경기 후 인터뷰실을 찾은 그는 동료들 활약으로 4강전에서 승리(77-76)한 덕분인지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



김선형은 이번 월드컵에서 5경기에 출전해 평균 6.6점·3.0리바운드·3.8어시스트를 기록했다. 2014년 월드컵에서 그는 백업 역할을 했지만 이번엔 주축선수로 활약했다. 조별리그 2차전 러시아전에서의 활약이 좋았고, 순위결정전 중국과의 경기에서도 좋은 플레이를 선보였다. 하지만 한국은 1승4패로 대회를 마감하며 32개 참가국 중 26위에 만족해야 했다. 세계 정상급 팀과의 격차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월드컵에 관한 질문에 김선형은 아쉬움 가득한 표정으로 “월드컵 이전의 4개국 친선대회 등에서 세계적인 팀들 격돌하면서 많은 걸 느꼈다”라며 “강호들과의 대결을 통해 어느 정도 시도는 해봤다. 성공 확률이 떨어지는 게 문제였는데 이를 높이기 위해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뿐 아니라 이대성 등 개인기가 좋은 선수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대회였다. 다음 월드컵까지 경험을 축적한다면 4년 후에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선형이 이번 월드컵에서 기록한 2점 슛 성공률은 22.6%, 3점 슛 성공률은 21.1%였다. 그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쓰면 어김없이 블로킹이 오더라. 타이밍 등 경험에 관한 문제였다. 월드컵을 앞두고 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팀들과의 경기를 통해 몸으로 익혀야 한다. 그레아 4년 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마카오 | 최용석 기자 glyong@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 설렘설렘 디우프 1순위 맞아? ...프로의 힘 증명한 도로공사

(KGC인삼공사)

디우프에 실망한 서남원 감독 쓴소리 수원시청, IBK와 1세트 듀스 선전 도로공사, 리시브로 양산시청 압도



21일 막을 올린 순천 MG새마을금고 KOVO컵 첫날

키워드는 “설렘설렘 디우프”와 “우린 잃을 것이 없다”였다.

외국인 트라이아웃 전체 1순위로 202cm의 신장과 이름값 덕분에 기대가 컸던 디우프가 출전한 KGC인삼공사는 토종선수들 로만 출전한 흥국생명에 세트스코어 1-3 완

패를 당했다. 16득점 26% 공격성공률을 기록한 디우프는 1세트 -33%의 공격효율을 찍을 정도로 처참했다. 공격 파워와 높은 타점은 없었고 동작이 공했다.

“연습 때도 이 정도였다”는 서남원 감독은 취재진의 질문에 ‘설렘설렘’이라는 말까지 했다. 그만큼 모든 것이 기대에 차지 않는다는 얘기로 해석되지만 이번 실패를 계기로 디우프 스스로가 뭔가를 깨닫기 위해 일부러 매스컴을 통해 원하는 메시지를 남긴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IBK기업은행을 상대했던 실업팀 수원시청은 1세트 듀스점전을 이어가며 먼저 세트를 따낼 찬스까지 잡는 등 선전했다. 강민식

감독은 “우리는 프로팀에서 뛰다가 온 친구가 70%고 지명을 못 받은 선수가 30%다. 프로출신들에게는 자신감을 지키라고 했고 다른 선수들에게는 자신감을 가지라고 했다. 오늘 선수들의 투혼에 만족한다. 다음에도 고춧가루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22일 이어진 순천 KOVO컵 여자부 B조 양산시청의 경기를 앞두고 도로공사 김중민 감독도 “프로팀을 상대할 때보다 더 떨리는 경기”라고 했다. “실업팀은 부담이 없지만 우리는 반대다. 쫓아가는 경기가 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초반 분위기의 중요성을 말했다.

시은미·이미소·황현정 등 프로출신 3명

이 출전한 양산시청을 상대로 도로공사는 국가대표팀에 차출된 박정아·하혜진을 제외한 베스트멤버를 투입했다. 1세트 옛긴슨의 파괴력 넘치는 공격으로 기선을 잡은 도로공사는 문정원의 4연속 서브에이스로 12-4를 만들며 일찍 상대의 기세를 꺾는데 성공했다.

첫 세트를 13점 차로 이기고 2세트도 문정원의 서브타임에서 13-3까지 앞서가자 도공은 옛긴슨을 빼며 긴장을 풀었다. 11득점 44% 공격성공률의 옛긴슨은 타점과 파워에서 눈에 띄었다. 12득점의 문정원은 7개 서브에이스를 터트렸다. 3세트도 일방적인 리드 끝에 세트스코어 3-0(25-12 25-7 25-10)으로 끝낸 도로공사는 13개의 서브에이스를 기록하며 프로팀과 실업팀의 차이는 서브와 리시브 능력이라는 점을 새삼 확인시켰다. 순천 | 김중건 전문기자

## 비워서 더 풍성해진 순천 KOVO컵 개막 행사

- 1 6000만원 투입 대형전광판 임대
- 2 2억 1000만원 들여 경기장 새 단장
- 3 팝나무들 영상으로 개막 선언 신선

사상 처음으로 호남에서 열리는 순천·MG새마을금고 KOVO컵이 21일 화려한 막을 올렸다.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개막전에는 2378명의 관중이 찾아 프로배구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순천시의 시 승격 70주년을 기념해 16일 동안 남녀부 경기가 열리는 이번 KOVO컵을 앞두고 순천시와 한국배구연맹(KOVO)은 많은 것을 준비했다.

팔마체육관은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팬들

을 맞이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기장 스탠드 양쪽 상단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이었다. 특히 본부석 뒤의 전광판은 길이가 15m 이상인 초대형 고화질이었다. 이번 KOVO컵 기간동안 2개 전광판의 임대료는 무려 6000만 원이다. KOVO컵부터 비디오관독을 실시간으로 경기장의 관중에게 보여주기 위해 V리그는 이 참에 보다 생생한 경기 모습, 선수들의 땀방울까지 선명하게 관중에게 전달하고자 현명한 투자를 했다. 사실 이 비용이라면 관중동원을 위해 유명가수를 초대할 수도 있었지만 1회성 행사보다는 대회 기간 내내 V리그의 진정한 매력을 보여주자고 판단했다.

4억 원 이상이 투자된 밝은 LED 조명 아래서 KOVO는 팔마체육관을 순천 KOVO

컵의 상징인 코발트색으로 통일해 일체감을 높였다.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잡아줄 방송용 카메라 설치대까지 세심하게 장식했다. 그 덕분에 V리그가 열리는 기존의 경기장과 견줘도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팔마체육관을 신뜻하게 꾸미는 데만 2억1000만 원이 들어갔다. 호남 팬들에게 첫 선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해 경기장 개보수 비용으로 예산 이상을 썼다. 초과된 비용은 다른 곳에서 줄인다”고 KOVO 관계자는 귀띔했다. 이처럼 대회를 거듭할수록 세련미를 더해가고 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주기 위해 KOVO는 노력하고 있다.

흥국생명-KGC인삼공사의 여자부 개막전에 앞서 열린 식전 행사도 이전과는 달랐다. 그동안 개막식에서 흔하게 보던 지방자치단체 높은 분들의 축사나 개회선언은 없었다. 미래의 V리그 선수를 꿈꾸는 순천 대

석초등학교 유소년 선수들이 영상으로 대회 개막을 알렸다. 신선한 시도였다. 사실 대형 스포츠 행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체 수장들은 그 행사를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좋은 기회로 생각한다. 그래서 간혹 정치색이 짙은 행사로 변질되고 이를 지켜보는 팬들은 세리머니를 지루해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었다.

KOVO와 순천시의 실무자들은 식전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전례를 철저히 거부했다. 물론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허석 순천시장의 열린 마음이었다.

그래서 순천·MG새마을금고 KOVO컵 개막행사는 역대급으로 세련되게 보였고 많은 것이 생각나게 했다. 비우면 채워지고 욕심을 버리면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순천 KOVO컵 개막행사는 이를 잘 보여줬다.

순천 | 김중건 전문기자